

季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계엄 1년 맞아 특별 성명 발표

“입법부가 권한 잘 행사할 것”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힘 실어
2차 특검에 “이 상태론 못 덮어”
12월 3일 법정 공휴일 추진도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 기습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사적 암을 위해 현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희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가동하는데 대해서도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상태로 뒹고 넘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면출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청산’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는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상 공세의 대상이 될 국민의힘은 이 날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 등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기사 A4·5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민주당, 노사에 3가지 방안 제시
10년 간 늘려 2039년 65세로 연장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도 허용



장하도, 경영계가 주장해 온 ‘퇴직 후 재고용’을 1~2년 허용하기로 했다. 둘째 암이 채택되면 정년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업에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년이 63세가 되는 2035년에는 재고용을 65세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3가지 안 모두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전에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구성됐다”며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내 당 차원의 최종 공식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는 등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관련 상임위 법안 심사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年内)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아사 기자 A12면에 계속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전용 오피스텔 분양

서울대병원배곧 with 프라임센터

2만명 상주

지금 이곳이 진짜 금맥!!

의사·간호사·환자·바이오연구원



서울대병원 앞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



14.2평
(1.5룸) 1층 9.58평
복층 4.62평

프리미엄 오션뷰, 공원뷰
 분양가 1억 6000만원~

서울대병원 최첨단 AI 개막시대 시작
프라임센터는 서울대병원과 함께합니다.

대표 번호 1688-4626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법원 “법리에 다툼의 여지 있어”
與 “조희대 사법부 심판 받을 것”



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구속

박혜연·김상윤 기자 기사 A3면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지방시대위, 소득 변화 분석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몰려
“지역 거점도시 집중 육성해야”

15~39세 청년의 2023년 평균 소득은 2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보다 22.8% 증가했다. 소득 증가세가 2년 동안 줄곧 비수도권에서 일했던 청년(12.1%)의 거의 2배다. 비수도권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광역시·전남, 충청권(충북·충남·세종) 등 4개 지역을 뜻한다. 일자리 이동이 적은 강원·전북·제주는 빼고 조사했다.

정석우 기자 A2면에 계속

八面鋒

12·3 계엄 1년, ‘내란 청산’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사골도 이정도로 우리면 맛 없다는 말 나올텐데.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하기로. “국힘 해산” 외치는 누군가 눈치 본 건 아니겠지?

리 간접, 요즘 ‘알바’ 모집해 텔레그램으로 공작 시시하고 대가는 코인으로 준다고. 긴첩질도 시류 따라 전화.